

좋은 제품

예전에는 물건을 사려면 어느 회사 제품을 사라는 이야기가 확실한 때가 있었다. 예를 들어 TV를 한 대 사려면 Sony(소니)를 사라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 값이 비싸도 그것을 샀던 때가 있었다. 물론 지금도 그렇기는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많은 제품들이 이름만 바꾸고 내용 제품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금 싼 가격의 것을 사려고 알아보면 유명상품과 거의 같은 것임을 알게 된다. 이러한 일은 가전제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플 때에 먹는 약에도 있고, 자동차에도 있으며,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제품들이 공유되고 있다.

그러다가 보니 이전에 있었던 좋은 제품을 찾는 다는 것이 의미를 잃게 되었다. 일본제품이 가지고 있었던 깨끗함과, 미국 제품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품질 등이 이제는 의미를 잃었다는 것이다. 가끔 집에 필요한 물건을 사려고 할 때에 어려움이 생긴다. 무엇이 가장 좋은지 잘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손님 입장에서 볼 때에 조금 더 품질을 개선하고, 일회용이 아닌 오래 쓸 수 있는 것이 되며, 회사의 이름이 그 품질을 믿게 하는 것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된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교회는 많은 것을 잃었다. 세상에서 거룩함, 정직함, 순수함, 새로움, 하나 되는 사랑 ... 그러나 이러한 것들과 함께 교회가 교회다운 것을 잃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교회가 복음을 잃고, 생명력을 잃었으며, 세상을 끌어당기는 은혜를 잃었고,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의 자리를 잃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이 관심을 갖기에 멀리 가버린 곳이 교회가 되지 않았나 걱정스럽다.

연일 교회에 대한 기사와 이야기들이 미국과 한국에서 나오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소식들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생각한 것이 맞다고 무릎을 치며 교회에 등을 돌린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는 벌써부터 있었던 다름과 미움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충분한 종교 생활에 심취해 있다.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생각도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가운데 세상은 교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문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복음을 들어야 하는 자들이다. 믿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라도 있고 말씀을 들을 기회라도 있지만 온통 교회에 대하여 잘못 된 이야기로 귀를 닫아버린 사람들에게는 다른 길이 없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 교회다워야 한다는 뜻에는 다른 신학적인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 말씀해 주신 대로,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면 될 것이고, 서로 먹이면 될 것이며, 서로 섬기면 될 것이고, 내 것 네 것이 없으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헌신하는 삶을 버리고 교만과 허영 그리고 거짓과 불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교회는 그 맛을 잃어서 믿는 사람들에게도 싫은 곳이 되고 세상은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맛이 살아있는 교회, 맛이 살아있는 성도, 하나님 사랑의 맛, 예수님 섬김의 맛, 은혜의 맛, 생명의 맛..... 이런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되어 갈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